

# 전남대, 한국·대만·일본 해양기후위기 대응 연구협력 강화

### 수산해양대학, 대만 국립해양대와 국제심포지엄 개최 기후변화·수산자원 글로벌 공동연구 네트워크 구축

전남대학교 수산해양대학이 자매대학인 국립대만해양대학교(NTOU)와 국제공동심포지엄을 개최하고, 한국·대만·일본을 잇는 해양기후위기 대응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 구축에 나섰다.

전남대 수산해양대학 학술단은 지난 6월 24~27일 대만 국립대만해양대학교에서 열린 '2026 International Symposium on Marine Affairs and Conservation in the Northwest Pacific'에 참석해 북서태평양 해양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생태계 변화와 수산자원 감소 등 북서태평양 지역이 공동으로 직면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대만·일본 3개국 해양 전문가 15명이 참여해 공동 연구와 협력 방안을 모색했으며, 전남대는 국내 해상 조업 관리 시스템과 수산해양 분야 연구 성과를 공유했다.

참가자들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과학 데이터 통합 △북서태평양 블루카본(Blue Carbon) 평가체계 구축 △과학 기반 수산자원 평가와 투명한 관리체계 △해양폐기물 등 해양환경 문제 대응 등을 주요 의제로 집중 논의했다.

개막식에서는 슈타이원 국립대만해양대 총장이 전남대 방문단을 환영하며 양교의 자매결연 관계를 재확인했다.

양 대학은 지난해 전남대에서 열린 심

포지엄에 이어 국제학술심포지엄을 매년 정례 개최하기로 합의했으며, 대학원 석사학위 과정 추진을 통해 학생 교류와 글로벌 인재 양성에 확대하기로 했다.

여주시 교육발전특구 사업인 '국제협력교류강화 프로그램' 운영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양 대학은 오는 11월 전남대 재학생과 여주시지역 고등학생 30명을 대상으로 국립대만해양대학교 현지 단기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 인재들의 국제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규수 학장은 "한국·대만·일본은 각기 다른 강점을 갖고 있지만 기후변화와 해양폐기물 등 공동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이번 협력체와 인적 교류 플랫폼이 북서태평양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전남대 수산해양대학 학술단은 지난 6월 24~27일 대만 국립대만해양대학교에서 열린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해 북서태평양 해양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 광주다사랑병원,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 선정

### 알코올 분야 24시간 진료체계 상시 유지

광주다사랑병원은 최근 특정 질환에 대해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지역 필수 의료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보건복지부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에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은 의료기관이 전문적인 응급기능(응급의료기관·응급의료센터 등)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특정 분야에서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육성·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이행에 따라 2025년 7월부터 화상, 수지절단, 분만, 소아, 뇌혈관 5개 분야에서 총 29개 의료기관을 선정·지원해 왔다.

여기에 추가로 지난 6월 4일부터 17일까지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신규 참여기관 신청을 받고, 이후 신청기관에 대한 지정요건 충족 여부 등을



심의해 이번에 총 8개소(소아 2개소, 뇌혈관 1개소, 알코올 5개소)를 선정했다.

이번 선정으로 광주다사랑병원은 필수특화 분야에 대한 24시간 진료체계를 상시 유지하며, 의료진 당직 대기비용인 '24시간 진료지원금'과 24시간 진료체계 유지, 응급 대응, 진료 협력 성과 등을 평가해 '성과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신재정 다사랑의료재단 이사장은 "호남지역 유일 알코올 치료 전문병원으로 복지부 '4주기 의료기관 인증' 획득, 알코올 중독 치료 전문병원 5년 연속 선정 등 알코올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며 "이번 선정을 계기로 중독 환자들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고 일상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전남광주통합특례시 동구가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폭염 취약계층을 위한 여름나기 지원사업에 나섰다.

## 동구, '희망여름 착착착 나눔캠페인' 발대

###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여름나기 지원 본격화

전남광주통합특례시 동구가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폭염 취약계층을 위한 여름나기 지원사업에 나섰다.

동구는 최근 '2026 희망여름 착착착 나눔캠페인'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발대식은 취약계층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구는 동 행정복지센터 추천을 받은 폭염 취약계층 1200여가구를 대상으로 선풍기와 냉감이불, 삼계탕·미숫가루 등 보양식 키트를 지원할 계획이다.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캠페인 배

금 4000만원과 빚고을 기획사업비 7000만원 등 총 1억1000만원의 배부금을 전달했다.

동구는 이 가운데 캠페인 배부금 4000만원에 자체 기획사업비 2000만원을 더해 총 6000만원 규모의 여름나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캠페인의 첫 기부자로 김대영 남진 DNS 회장이 성금 100만원을 전달하며 나눔 실천에 동참했다.

이번 첫 기부는 민선 9기 출범과 통합특례시 출범을 기념하는 의미를 더하며 지역사회의 나눔문화 확산의 시작을 알렸다.

송태영 기자 sty1235@

## 비상무용단, 창작 무대로 국제 교류 나섰다

### 몽골예술가연합회와 업무협약 현저서 '맹기머리 사건' 공연도



비상무용단은 3일 몽골 나이랍달 어린이 국제캠프장에서 몽골예술가연합회와 국제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창작공연 '소년, 그 마음에 붉은 명들다-맹기머리 사건'을 선보였다.

비상무용단(대표 박종임)이 몽골예술가연합회(Wind of Nomad)로부터 공식 초청을 받아 국제 문화예술 교류에 나섰다.

비상무용단은 3일 몽골 나이랍달 어린이 국제캠프장에서 몽골예술가연합회와 국제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창작공연 '소년, 그 마음에 붉은 명들다-맹기머리 사건'을 선보였다.

이번 초청은 문화체육관광부 2026 지역대표 예술단체 지원사업으로 마련된 국제교류의 성과로, 몽골예술가연합회가 지역대표 예술단체로 선정된 비상무용단을 통해 한국과 나주의 문화예술을 소개하고, 교육과 문화예술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를 증진하며 지속적인 예술교류 기반을 마련하기로 하면서 이뤄졌다.

이에 양 기관은 문화예술 분야 및 교육 협력, 문화예술 교류, 글로벌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 프

젝트의 예술인 교류 등 지속 가능한 국제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비상무용단이 몽골에서 선보인 '소년, 그 마음에 붉은 명들다-맹기머리 사건'은 1929년 나주학생독립운동의 도화선이 된 '맹기머리 사건'을 모티브로 한 창작공연이다.

지역의 역사와 독립운동 정신을 중심으로 재해석한 이 작품은 지역 문화콘텐츠의 예술적 가치를 담아낸 대표 레퍼토리다.

박종임 대표는 "이번 몽골 초청은 지역에서 만든 창작 콘텐츠가 해외와 만나는 뜻깊은 계기다. 공연을 통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해외 관객들에게 알리는 의미 있는 무대가 됐길 바란다"면서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문화예술과 교육 분야에서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가며 지역 문화콘텐츠의 국제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공영민 전남광주통합특례시 고흥군수(가운데)가 최근 여객동무봉사단 간담회를 찾아 우수자원봉사자에게 마일리지 인센티브를 전달하고 있다.

## 고흥군, 우수자원봉사자 인센티브 지급

### 100시간 이상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시행

전남광주통합특례시 고흥군은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시행에 따라 우수자원봉사자 79명에게 제공하는 고흥사랑상품권의 지급을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는 자원봉사자의 헌신과 노고를 격려하고 자원봉사에 참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한 제도이다.

1365 자원봉사포털의 봉사활동 시간을 기준으로 직전년도 고흥군에서 100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민에게 고흥사랑상품권을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올해 인센티브 지급 대상자는 총 79명이며, 봉사 실적에 따라 100시간 이상 8

만원, 200시간 이상 15만원, 500시간 이상 20만원의 고흥사랑상품권을 차등 지급했다.

군은 이번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자원봉사자들의 사회적 기여를 격려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지역사회를 위해 꾸준한 나눔을 실천해 준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자원봉사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더 많은 군민이 자원봉사에 참여하도록 다양한 지원과 예우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gwangnam.co.kr

## 스마트인재개발원, AI 전환 시대 인재양성 해법 제시

### 광주 CGI센터서 온·오프라인 컨퍼런스...지역청년 역량 강화

스마트인재개발원이 AI 시대에 요구되는 핵심 역량과 미래 일자리 변화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스마트인재개발원은 최근 광주 CGI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AI Transformation 2026: AX가 만드는 새로운 기회'를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AI 기술이 산업과 일자리 전반에 가져오는 변화를 조명하고, AI 시대에 필요한 역량과 준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현장과 온라인을 병행한 방식으

로 진행됐으며 AI와 디지털 전환에 관심 있는 지역 청년과 구직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AI 에이전트 시대 비즈니스 혁신'을 주제로 차경진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생성형 AI와 AI 에이전트가 기업의 업무 방식과 고객 경험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소개했다.

AI 기술이 단순한 업무 자동화를 넘어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민수 인공지능사관학교 연구원은 'AI 시대, 우리는 뭘 준비해야 할까'를



스마트인재개발원은 최근 광주 CGI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AI Transformation 2026: AX가 만드는 새로운 기회'를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주제로 AI 리더십과 생성형 AI 활용 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변화하는 채용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끝으로 임보미 스마트인재개발원 선임 연구원이 'AI를 알아가는 가장 빠른 방

법'을 주제로 스마트인재개발원의 AI·IT 교육과정과 취업연계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실무 중심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 방향을 제시했다.

송대용 기자 scdw0918@gwangnam.co.kr